

보도시점 수신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2025. 3. 6.(목)

은행 담합 사건과 관련하여, 부실한 조사는 사실이 아니며, 제재 수준, 심의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는 점을 알려드립니다.

1. 보도내용 (이데일리, '25.3.6.)

- “공정위, 4대 은행 담합 조사 상반기 결론… 단순 '경고' 그칠 듯”(이데일리) 제하의 기사에서,
- 기업 대출심사 과정에서 LTV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 이에 대해 부실하게 조사가 이루어졌고, 금년 상반기 중 경고 수준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설명내용

- 현재 제재 수준이나 심의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.
- 사무처에서는 신속히 재심사를 완료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고, 이후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
- 은행 건에 대해 초기 조사가 부족하여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.
- 재심사 결정은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들과 관련되어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다 공정하고 충실한 심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.

담당 부서	카르텔조사국	책임자	과 장	이지훈 (044-200-4566)
	국제카르텔조사과	담당자	사무관	박선욱 (044-200-4573)